#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8호 【루계 제2768호】

주체112(2023)년 9월 16일 토요일 음력 8월 2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

#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김정은원수님과 뿌찐대통령의 두터운 친분과 각별한 우의속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더 승화발전되고있다.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확대발전을 위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맞이하게 될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현지시간으로 13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렬차에서 내리시자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히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을 비롯한 영접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의 접견을 위하여 상봉장소로 향하시였다.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병철,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오수용,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수행간부들과 수행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조로수뇌분들이 상봉하시게 될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건물앞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조관계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로씨야련방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국가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따뜻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주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함께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유리 보리쏘브 로씨야국영회사 《로스꼬스모스》 총사장과 니꼴라이 네스쩨츄크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쎈터 소장이 안내해드리였다.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은 각이한 용도의 우주기구 및 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장성에 기여하고있으며 아무르주와 원동지역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로씨야의 종합적인 우주발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쏘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케트들의 구체적인 기술적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또한 운반로케트 《쏘유즈-2》발사종합체와 운반로케트 《안가라》발사종합체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및 건설실태와 로씨야가 우주산업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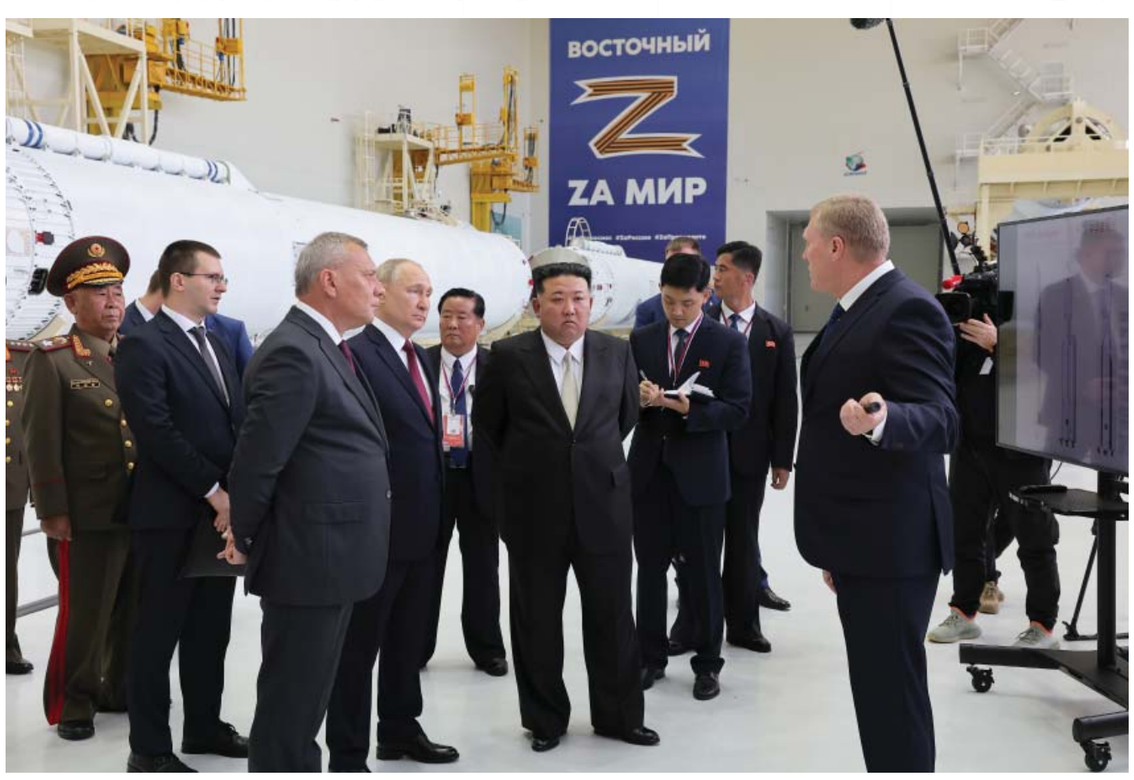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의 전략적인 우주개발구상에 따라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이 훌륭히 일떠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주에로의 길을 개척한 강대한 로씨야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뿌찐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것이다. 김 정 은 2023. 9. 13》**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3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뿌찐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조로 두 나라 국기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오수용,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임천일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측에서는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 제니스 만뚜로브 정부부수상 겸 공업무역상, 쎄르게이 쇼이구 국방상, 알렉쎄이 오베르츄크 정부부수상, 유리 뜨루뜨네브 정부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마라뜨 후스눌린 정부부수상, 드미뜨리 뻬스꼬브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공보관,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태학상 겸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 위딸리 싸벨리예브 운수상을 비롯한 지도간부들과 관계일군들,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뿌찐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과 로조외교관계설정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씨야를 또다시 방문하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김정은원수님과 상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중요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을 초청해주고 방문의 첫시작부터 따뜻이 환대해주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시면서 뿌찐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우주강국 로씨야의 현실과 앞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알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로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는 의의깊은 계기가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래왕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친선단결과 협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호상신뢰를 증진시켜나갈데 대하여 론의하시였다.

회담에서는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였으며 공동의 노력으로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관계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합의되였다.

전원회담에 이어 김정은원수님과 뿌찐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가 친선과 선린,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조로수뇌분들께서는 강대한 국가건설의 전략적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와 건설적인 협조경험, 국가부흥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누시였다.

또한 인류의 자주성과 진보, 평화로운 삶을 침탈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위협과 도발, 강권과 전횡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전선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을 더욱 긴밀히 하고 강력히 지지련대하면서 힘을 합쳐 국가의 주권과 발전리익,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문제들과 당면한 협조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시였으며 만족한 합의와 견해일치를 보시였다.

회담은 시종 동지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환영하여

##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씨야방문을 환영하여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9월 1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 앞서 뿌찐대통령은 김정은원수님께 상봉기념으로 선물을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자신께서 마련하신 선물을 뿌찐대통령에게 전해드리시였다.

연회에는 최선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리병철, 박정천 조선인민군 원수들, 강순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오수용, 박태성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수행간부들이 초대되였다.

쎄르게이 라브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상, 제니스 만뚜로브 정부부수상 겸 공업무역상, 쎄르게이 쇼이구 국방상, 알렉쎄이 오베르츄크 정부부수상, 유리 뜨루뜨네브 정부부수상 겸 원동련방구주재 대통령전권대표, 마라뜨 후스눌린 정부부수상, 드미뜨리 뻬스꼬브 대통령행정부 부책임자 겸 대통령공보관,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자연부원생태학상 겸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 위딸리 싸벨리예브 운수상을 비롯한 로씨야의 지도간부들과 관계일군들, 알렉싼드르 마쩨고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뿌찐대통령의 안내를 받으시며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공고하고 참다운 조로친선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주시는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을 박수로써 열렬히 환영하였다.

연회에서는 뿌찐대통령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뿌찐대통령은 로씨야의 귀빈인 김정은국무위원장동지와 조선의 벗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친선적이고 동지적이며 선의적인 뉴대로 이어진 로조관계의 발전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뿌찐대통령은 로조관계는 오늘도 변함없이 동지관계, 선린관계로 지향되고있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와 번영을 위하여 일관한 노력을 기울일 로씨야정부의 드팀없는 의지를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답례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4년 5개월만에 로씨야련방을 다시 방문하여 뿌찐대통령과 상봉하고 동지적우의의 정이 넘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방문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기울이고있는 뿌찐대통령과 중앙과 원동의 관계부문 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시였다.

아울러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며 국가의 전략적리익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수행에 떨쳐나선 전체 로씨야인민에게 조선인민의 전투적경의와 따뜻한 형제적인사를 전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과 함께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고 그 위력으로 두 나라에서의 강국건설위업을 강력히 추동하며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해나갈 용의를 피력하시였다.

연회는 우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치는 격식없고 화기로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연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것을 정중히 초청하시였다.

뿌찐대통령은 초청을 쾌히 수락하면서 로조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건강하여 강력한 로씨야건설을 위한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시면서 뿌찐대통령과 뜨겁게 작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로씨야지도간부들과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의 환송을 받으시며 다음방문지로 출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 로씨야련방 대통령사이의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은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 선린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이에로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반제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정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사변적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입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어언 일흔다섯번째의 년륜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조용히 그 이름 불러만 보아도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어머니조국의 건국명절을 맞이한 우리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태양조국의 해외공민된 가슴뿌듯한 긍지와 자랑을 안고 9월의 조국하늘가를 우러러 축원의 인사,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습니다.

구순을 눈앞에 둔 제가 9월에 들어서면서 남다르게 더더욱 강렬해지고있는 태양과 같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붓을 들고보니 하나의 굵직한 획으로 이런 글발이 절로 새겨집니다.

《조국은 우리 삶의 영원한 품!》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품어안아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는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한생토록 생생히 새겨안고있는 력사의 체험자, 증견자로서 재일조선인운동사의 갈피마다에 깃들어있는 어머니조국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가운데서 그 일부를 세상에 전하고저 합니다.

## 공화국은 진정한 우리의 고향

일본 도꾜의 한복판에 우뚝 서있는 조선회관상공에서 힘차게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면 마음은 절로 숭엄해지고 어머니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샘처럼 솟구칩니다.

조국해방과 더불어 일떠선 조선회관은 근 80년의 력사와 더불어 여러번이나 옮겨지었지만 회관상공에서는 지난 75년간 우리의 공화국기가 어느 하루도 나붓김을 멈춘적 없었습니다.

오늘도 도꾜의 상공에서 찬연히 휘날리는 람홍색국기를 보느라니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땅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헤여졌던 동포들이 일본으로 되돌아오던 모습이 어제런듯 방불히 떠오릅니다.

희망안고 남조선으로 귀국했던 수많은 동포들이 쪽배를 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오는것을 보고 철없던 저는 의혹을 금할수 없어 이웃집 할머니에게 저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오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그래도 고향이라고 찾아갔지만 미국놈들과 민족반역자들이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는 집과 직업을 얻기는 고사하고 한시도 마음편히 살수 없어 다시 온다고, 그곳은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고 조국이 아니라 이국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조선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제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희한한것들이였습니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실시 등 희망으로 가슴높뛰게 하는 놀라운 소식들이 련일 전해지던 그때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35(1946)년 12월 13일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를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우리 조국은 강대한 위력으로써 동포들에게 힘을 주고 동포들을 돌보아줄것이며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동포들을 따뜻이 맞아들일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정넘친 말씀을 받아안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에게도 광명의 해빛을 뿌려주셨다.》고 격정을 터치였습니다.

사랑의 서한을 받아안은 재일동포들은 조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새롭게 깨닫게 되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동포사회가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던 그때 저의 나이는 13살이였습니다.

공화국기도안을 조국의 방송을 통해 알고 동포들이 자작 만든 엇비슷한 기발들을 손에 들고 기쁨속에 웃고울던 그 광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난생처음으로 제 나라 기발을 보게 된 저로서는 국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는 알수 없었지만 형언할길 없는 환희가 온몸을 감싸안는것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탓에 산설고 물설은 일본땅으로 끌려와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등살을 벗기우고 목숨까지 잃어야 했던 우리 동포들에게 있어서 공화국기는 그대로 조국이고 고향이였습니다.

하기에 점령군인 미군이 《공화국기게양금지령》을 발포하고 일본경찰을 내몰아 공화국기게양을 한사코 막으려 총칼을 휘두를 때 동포들은 우리의 성스러운 국기를 지켜 결연히 싸웠습니다.

공화국기사수투쟁의 나날 우리 동포들이 피흘리며 지켜낸 한폭의 공화국기가 지금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 조국이라는 말의 참뜻을 후대들에게 가슴깊이 새겨주고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그해 10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과 함께 공화국창건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것을 두고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재일동포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해주시였습니다.

한덕수동지를 비롯한 우리 동포들 모두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여명규모로 경축대표단이 구성되였지만 미일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일부 대표들만이 조국을 향해 떠나게 되였습니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그리움으로 가슴끓이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풍랑사나운 바다길에 올랐던 그날에 한덕수동지가 쓴 시 《조국으로 가는 길》을 조용히 외워보면 조국을 따르려는 우리 동포들의 지향이 얼마나 열렬했던가를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됩니다.

조국애에 불타는 60만 동포들의
붉고붉은 그 마음 이 한몸에 안고서
조국으로 가는 길 성스러운 이 길을
…
아 쪼각배야 력사의 이 배야
겨울물결 헤치고 빨리빨리 달려라
바다너머 저 멀리 그리운 조국땅에
포근히 안아주실 장군님이 계신다
…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는 공화국만이 우리의 정든 고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안겨살 진정한 조국이다, 이것은 망국노의 설음안고 일본땅에서 살아온 우리 재일동포들의 신념의 선택이였습니다.

고향이 대부분 남조선인 재일동포들이 어찌하여 공화국을 진정한 고향, 참다운 조국이라 부르며 공화국기를 손에 들고 운명적인 선택을 하였겠습니까.

안아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수령의 품이야말로 진정한 조국이라는것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기에 재일동포들은 남행길이 아니라 북행길에 올랐고 서울행이 아니라 평양행을 택하였던것입니다.

## 한집안식솔로 안아주는 품

지금도 저 멀리 조국의 하늘가를 바라보느라면 해외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조국에 오는것은 본가집에 오는것과 같다고 하시며 자주 오라고 당부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정깊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가집!

참말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은 우리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있어서 자애로운 어버이께서 계시는 본가집이였습니다.

제가 위대한 장군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온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전인 주체79(1990)년 9월중순 어느날이였습니다.

조국을 방문하고있던 우리 일행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퍼그나 늦은저녁이였습니다.

한달음에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간 저희들은 그만 주춤거리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저희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식사를 뒤로 미루신채 우리를 기다리고계시였던것입니다.

너무도 송구스러워 어쩔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먼길에 수고가 많았다고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어버이의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을 식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아무런 격식과 틀도 없이 우리들을 한집안식구처럼 대해주시며 저희들앞에 손수 음식그릇까지 놓아주신 어버이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우리들을 위해 천금같은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였습니다.

이튿날 우리들과 또다시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깊은 눈길로 저희들을 둘러보시며 옛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본가집에 갈 때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조국에 올 때에는 부인과 자식들도 데리고 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습니다.

저희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여 가족들까지 불러주시는 그 사랑은 정녕 우리 총련일군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운명, 아니 모든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다 책임지신 친어버이의 가장 따뜻한 정이였습니다.

자식들과 집안일을 의논하듯 흉금을 터놓으시고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저는 어버이의 가장 숭고한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가슴뿌듯이 새겨안게 되였습니다.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친어버이사랑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줄수 있는 모든 사랑을 훨씬 초월하는 위대한 사랑이였습니다.

저를 만나주실 때마다 책임부의장에게 있어서 조국은 고향이라고, 동무가 자기 고향이 평양이고 장군님의 품이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조국체류중에 생일을 맞는 저를 저택에 부르시여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오래간만에 고향집에 찾아온 자식에게 갖가지 음식을 차려주는 어버이마냥 가정에서 손수 떡까지 쳐주신 장군님은 진정 자애깊으신 위대한 어버이이시였고 장군님 계시는 평양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달려가 안기고싶은 본가집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은 그날부터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 해만지는 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안으며 우리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역만리에 있어도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행복한 자식들이 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포자녀들을 위해 재배산삼을 수만뿌리나 보내주신 이야기며 일군들의 건강을 헤아려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조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재일조선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별렬차를 편성해주도록 하신 이야기 등 멀리 떨어져 사는 이역의 자식들을 위해 베풀어주신 특전특혜에 대해 다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에 있을 때, 행복한 날보다 어려운 때에 더 잘 알게 되는 법입니다.

조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변함없이 돌려진 크나큰 사랑에서 저희들은 피와 살을 나누어주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을 더욱 절감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실 때와 꼭같이 해마다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며 대지진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자금들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이역의 자식들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하고 정깊은 사랑이 그대로 응축되여있었습니다.

정녕 우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한집안식솔로 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육친적인 사랑은 열도와 깊이에 있어서 이 세상 제일 뜨겁고 웅심깊은 사랑이였습니다.

## 영원히 안겨살 어버이의 품

세월을 넘어 흐르는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재일동포들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하고 다심한 사랑과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만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총련은 사회주의조국의 한 부분이며 재일동포들은 어머니조국과 한 피줄을 잇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식솔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화국창건절을 맞는 9월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더욱 붉게 타는 그리움의 계절이고 원수님만을 끝까지 따를 철석의 신념이 가슴속에 용암처럼 뜨겁게 굽이치는 충효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 주체103(2014)년 9월 저는 공화국창건 66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으로 조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저희들은 먼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금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허종만이 왔다고 반겨맞아주시는것만 같아 한껏 쌓였던 그리움의 동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세월을 이기는 그리움이 없다지만 조국에 대한 저의 그리움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렬해만졌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신 정이 너무도 뜨겁고 깊었기때문이였습니다.

태양의 은혜로움과도 같았던 그 정을 잃은것만 같아 텅 비였던 우리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까지 합쳐 사랑을 채워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정깊고 열렬한것인가를 저는 조국방문의 나날에 가슴뜨겁게 체험하였습니다.

저의 조국체류일정은 중앙병원에서 종합검진과 치료를 받는것으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지난 시기 수십차례나 조국을 방문하였지만 이런 류다른 일정은 처음이여서 영문을 몰라하는 저에게 조국의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장동지가 나이도 많고 눈도 좋지 못한데 먼저 검진과 치료를 받도록 몸소 일정을 잡아주시였다고 말하는것이였습니다.

로환무책이라고 눈이 좋지 않아 고생하면서도 어쩔수 없는 일로 여겨왔는데 이렇듯 다심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원수님의 그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저는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습니다.

정말이지 그해의 조국방문의 나날은 충격과 감동의 련속이였습니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조국의 향취가 한껏 어린 성대한 연회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은 재일동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꿈같은 조국방문의 나날을 마치고 조국을 떠나던 그날을 저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30여일간의 조국체류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출발준비를 하고있던 저는 뜻밖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친서를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 따뜻한 보살핌속에 조국체류기간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린 저희들이 고마움의 인사도 미처 올리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친어버이의 사랑과 믿음이 가득넘치는 친서를 보내주시였으니 저는 너무도 놀랍고 꿈만같아 제정신이 아니였습니다.

저희들이 조국에서 마지막밤을 보내던 행복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슬하를 떠나는 자식들에 대한 걱정으로 온밤 잠 못이루시며 은정넘치는 사랑의 친서를 쓰신줄을 제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격정으로 떨리는 두손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봉투를 개봉하니 너무도 낯익은 그이의 존귀하신 필체가 순간에 안겨들어 저는 친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였습니다.

다소 마음을 진정하기는 하였으나 **《존경하는 허종만동지!》**라는 첫 문구에 저는 또다시 오열을 터치고야말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는 허종만의장과 총련을 굳게 믿는다는 크나큰 신임을 안겨주실 때 저는 거대한 산악을 통채로 받아안은듯 가슴이 벅차올라 끓어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하고 뜨거운 그 사랑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시던 사랑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과 함께 총련강화발전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강령도 밝혀주시였습니다.

새해 첫날과 기념일들 그리고 저의 생일때마다 축전과 축하문을 꼭꼭 보내주시여 우리들의 앞날을 뜨겁게 축복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사의 각오로 헤쳐가신 불멸의 자욱을 따라 제가 조국의 동부산악 2,500리의 행군길에 올랐던 그때처럼 귀중한 우리 총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더욱 용진하라고 힘과 용기를 주신분이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총련중시, 해외동포중시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내세워주시고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 제정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어머니의 정은 한가정의 뜨락을 넘지 못하지만 위대한 우리 어버이의 정은 이역만리에까지 따사롭게 비쳐들고있습니다.

사랑과 정에는 보답이 따르기마련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총련의 력사는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따뜻이 품어안아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인 동시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다 바쳐온 우리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의 력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그 길에서 빛나는 영생과 값높은 삶을 받아안은것입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충신들의 전렬에 내세워주신 한덕수동지, 조국에서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였을 때 그 첫 수훈자의 영예를 지닌 서만술동지,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되여있는 리진규, 문동건, 박정현, 남시우, 박희덕동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재일조선인애국자들의 영광넘친 삶은 조국을 따르는 길에 영원한 행복과 미래가 있음을 후대들에게 가르쳐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공화국만을 영원한 삶의 품으로 믿고 따르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는 공화국의 발전행로를 따라 앞으로도 영원히 줄기차게 이어질것입니다.

글을 마감하며 저는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세계의 최절정에 올려세우시여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강국공민의 영예와 존엄,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신 만고절세의 위인,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목청껏 소리높이 웨칩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주체112(2023)년 9월
일본 도꾜에서

##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뜻깊게 경축

시초

# 나는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신 홍 국

나는 부르고싶어라
어머니조국의 생일날
그대 자랑스런 아들로 공민으로
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람홍색국기의 노래를!

국기여! 그대는
이 몸을 키운 어머니
땀배인 옷자락인가
애국의 넋을 부어준
고마운 은인의 손길이던가

인민공화국선포의 그날부터
우릴 안아 키워준 그 품
불러도 불러도 진함이 없으니
오, 사랑하는 국기의 노래
그끝은 정녕 어디이던가

## 국기가 게양될 때

국기가 게양될 때
내가 선 곳은
어느 광장이 아니다
어느 일터가 아니다
누리를 한눈에 굽어보는
이 행성의 한복판!

국기가 게양될 때
나는 한가정의 가장이 아니다
수수한 평민이 아니다
조국의 명예를 안고나선
견결한 투사!
이 제도를 받든 억척의 성돌!

오 국기여! 그대는
흰구름 휘감고 솟은
리상의 거리
우주만리로 날으는
우리의 위성
승리의 광장에서 빛발치는
우리의 존엄이며 긍지!

국기가 게양될 때
그 기폭따라
이 강산은 더욱 키를 솟구는듯
조국의 국력과 위상에
가슴 한껏 부풀어
영광에 휩싸이는 이 몸

오, 자랑찬 우리의 국기여!
그대 뿌리는 눈부신 빛발
이 땅에 변혁을 낳고
광활한 미래로 줄달음치는
우리의 앞길 찬란히 비쳐주나니

국기가 게양될 때
기발따라 솟구쳐오르는
격정의 분출이여
내가 서있는 곳은
자주세계의 한복판!
나는 인민의 리상
공산주의를 두어깨로 떠받든
그렇다, 국기아래 억센
시대의 거인이여라!

## 대지에 날리는 기폭

창공에 휘날려서만
우러러보던가
내 마음 경건히
우러러 바라보는 기발이 있다

여름날 재령벌 삼지강농민들이
가을날 안악의 오국농장원들이
드넓은 대지에
풍년낟알로 새긴 국기

얼마나 국기를 사랑했으면
땀이고 량심인
그 탐스러운 밀포기로
그 금옥같은 벼이삭으로
드넓은 대지에 국기를 다 새겼으랴

가슴으로 쓸어보노라
땅에 새겨져
땅에 뿌리를 내려
숨쉬는 그 기폭!

계절은 바뀌여도
지워지지 않노라
가슴속에 펄럭이며
내 심장 두드리는 뜨거운 당부

땅을 떠나 이삭이 여물수 없듯
조국을 떠나 살수 없는 몸
품들여 가꾸라 바치라
키워준 그 품에
탐구의 이삭을 창조의 열매를

말없어도 진실한 땅처럼
수수천년 한모습인 바로 그 땅처럼
꿋꿋이 변함없이
한생을 묻어 길이 받들라
우리 국기 누리에 찬란히 빛나도록!

## 국기의 축복

곱구나!
네살잡이 귀여운 손녀
제손으로 차려입은
람홍색국기 새겨진
눈처럼 하얀 옷

바라보노라니 깊어지는 생각
아직은 모르리
국기에 담겨진 그 깊은 의미를
안다면 빨간별 오각별 고운 옷 입고
해빛밝은 탁아소로 들어서는
그 기쁨 아닐가

소중하구나 그 기쁨
매일 맛있게 먹는
신선한 우유며 과일들
재미있는 글공부 노래공부
안겨주고 지켜주는 품

너무 좋아 온몸이
기쁨되고 웃음된것 아니냐
좋은 세상 좋은 세월
오각별 빛나는 국기와
행복으로 맺은 인연
얼마나 크나큰 축복이더냐

눈보라 웅—웅— 울어도
비바람 창문을 흔들어도
가슴에 그 기폭 안으면
너는 웃음이 지지 않는 꽃!
눈속에도 청청한 애솔나무!

보답의 마음속에
언제나 입고 살거라
만복을 주는 삼색 고운 옷
가슴에서 국기가 지워지면
사랑의 별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 없어진단다!

##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노래여라, 국기여!
그대 정겨운 펄럭임소리는
행복과 기쁨을 실어오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승리여라, 국기여!
그대 줄기찬 펄럭임소리는
만세의 함성으로 울려오고
영광과 환희를 안겨주는

힘이여라, 국기여!
그대 담찬 펄럭임소리는
이 세상 폭제를 눌러버리고
평화의 무지개 하늘가에 펼쳐가는

들려온다 인민의 이름으로
탄생한 그날부터
그 인민의 웃음을 위해
눈비속을 헤친 우리 공화국
자애론 어버이의 애국의 숨결…

순간의 주저도 없이
단 한번의 동요도 없이
화목하고 존엄높이 살도록
인민을 지켜 헤쳐가신
위대한 령장의 헌신의 발걸음소리…

오, 그 소리에 실려 진함없는
그대 펄럭임소리는
우리의 령도자 **김정은**동지
사랑의 힘으로 대를 이어
이 강산 가득히 채워주시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음향!

그 음향 오선지에 담으면
인민의 웃음소리 넘치는
사랑과 행복의 선률이 되고
심장에 담으면
강대한 내 조국의 자랑
일심단결의 대합창곡 되나니

끝없이 메아리쳐가라
행복의 노래
승리의 함성
힘의 송가
절세의 위인을 모신
조선의 크나큰 자랑이여
오, 우리는 그 자랑 영광의 국기
심장에 게양하고 산다!

## 나의 소원

국기! 그대를 지켜
수백만 목숨을 땅에 묻으며
전쟁도 겪었다
그대를 빛내이려
고난과 시련의 언덕 넘으며
피와 땀도 바친다

허나 어찌 그것뿐이랴
나에겐 소원이 있어라
우리의 국기 언제나
국제경기장과 경연장들마다에서
남먼저 높이 오르기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국기를 보면
진리의 홰불인듯
조선! 그 위대한 이름을 외우며
더욱 경탄을 터뜨리기를
희망봉을 보듯 즐거워하기를

이루지 못할것 무엇이랴
이 세상 제일 강하신
사랑의 태양
위대한 **김정은**동지 모시고
성실하고 강직한 인민이 사는데야
정으로 화목한 일심의 대가정
주체의 사회주의가 있는데야

국기가 없는 하늘아래
망국민으로 살아본 인민이기에
국기를 내리려 달려드는
침략자들과 맞서
세기를 이어 승리해온 인민이기에

더욱 강렬하다 소원은
갈수록 사무친다 갈망은
우린 누구보다
행복하리라 강해지리라
람홍색국기 빛나는 하늘아래서

아 내 조국의 노래 시작된
백두산! 백두산에 태를 묻은
인민이고 국가이기에
천만심장 그 국기속에 높뛰고
그 심장의 박동으로
우리 국기 세차게 휘날리나니

소원은 꽃펴나리라
우리 삶의 아름다운 고향
태양이 눈부신 백두산
그 아아한 높이에서
우리의 문명
우리의 국력 빛발치고
우리의 국기 무궁창창 휘날리리라!

# 절세위인을 모시여 무궁번영하는 나라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지도 여러날이 흘렀지만 그날의 격정과 환희는 식을줄 모르는 용암마냥 공화국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들에서 위대한 조국의 강용한 기상과 무궁창창한 미래를 가슴벅차게 체감한 공화국인민들이다.

지금도 가슴뿌듯이 안겨온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일념을 안고 경축광장을 누벼간 열병종대들, 사회주의전야를 달리던 뜨락또르들이 원쑤격멸의 위력한 포차가 되고 창조와 건설의 대전역을 누비던 자동차들이 멸적의 무기들을 떠싣고 세찬 동음을 울리던 그 광경이.

그 멋스럽고 호기찬 광경앞에서 끓어오르는 격정을 터뜨리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쟁쟁하다.

《저 열병대오속에 내 남편과 아들이 서있습니다. 만약 원쑤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나도 손에 총을 잡고 판가리싸움에 떨쳐나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군대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민이 서있는데 그 무한대한 힘을 과연 어느 누가 당해낼수 있겠습니까. 보면 볼수록 힘이 솟고 승리의 신심이 백배해집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참가자들과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주체조선특유의 강용성과 단결력이 굽이친 장엄한 열병식은 진정한 인민공화국의 창건과 영광스러운 발전사를 긍지높이 떠올린 일대 장거로, 전민이 국가방위의 성새를 이루고 자주적존엄과 국권,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며 강국건설대업을 굴함없이 완강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기상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조선의 절대적힘이 노도친 격류였다면 **김일성**광장을 불의 바다로 뒤덮은 청년전위들의 홰불야회는 공화국의 창창한 미래를 확신케 하는 또 하나의 대정치축전이였다.

람홍색국기아래 자라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영광스러운 어머니조국의 생일에 펼친 불의 바다, 그 이름도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국청년들 앞으로!》.

청년들의 손마다에 쥐여진 홰불, 그것은 청춘들의 가슴마다에 타오르는 충성의 불, 애국의 불이였고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국가부흥의 새시대, 활기찬 혁명의 새 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려는 이 나라 청춘들의 신념의 분출이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승을 떨쳐온 존엄높은 공화국의 투쟁력사와 전통, 강용한 기상이 청년들이 추켜든 홰불의 대하로 굽이치는 그 모습은 강대한 이 나라, 공화국특유의 불가항력을 또 한번 절감하게 하는 장관이였다.

노래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광장을 진감하는 속에 새겨진 《번영하여라 조국이여!》라는 장엄한 글발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눈굽을 적시였다.

지구상의 수많은 청년들이 일신의 향락과 영달만을 추구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조국과 자기의 운명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애국의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찾는 미더운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 공화국의 창창한 래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뿌듯해서였다.

민방위무력열병식과 청년들의 홰불야회가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무궁창창한 미래에 대한 일대시위였다면 대성황리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대공연은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공화국위업의 필승불패성을 웅변적으로 펼쳐보인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였다.

공화국의 전 력사가 그대로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진 공연에서 련이어 울려퍼진 명곡들을 들으며 사람들은 공화국의 무궁번영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하신 연설에서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변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수령이 위대하여 인민도 위대하고 나라도 위대하다는 진리를 공화국은 탄생의 고고성과 더불어 자기 력사의 첫 갈피에 새기였고 련련히 이어져온 75성상의 빛나는 장정우에 절대불변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왔다.

돌이켜보면 탄생부터 결코 범상치 않았던 이 나라였다.

국호와 국기, 국장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절세위인의 거룩하신 손길, 빛나는 예지에 떠받들리워 세계앞에 새롭게, 눈부시게 떠오른 공화국이였다.

그렇게 탄생하여 불세출의 위인들의 탁월한 령도따라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요불굴의 기상으로 운명적인 국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하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 일심단결의 강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공화국이다.

정녕 공화국의 75성상은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절세위인들을 따르는 길이 곧 승리와 영광의 길, 행복과 번영의 길이라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축행사장들에서 이렇게 격정을 터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비로소 망국과 수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세기적기적들을 련이어 창조하는 기적의 창조자, 불사신의 영웅, 전설의 나라로 솟아오른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닙니까.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사상 가장 빛나는 강국의 인민으로 우리를 세계의 단상우에 높이 내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행운중의 대행운이고 경사중의 대경사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꼭같으신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그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고 제국주의떼무리들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배심은 든든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락관으로 충만된 우리의 가슴가슴은 지금 경애하는 그이를 따라 끝까지 한길을 갈 불같은 결의로 세차게 높뛰고있습니다.》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한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길 불같은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히 전진의 앞길을 중중첩첩으로 가로막아나서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침략자도, 자연의 횡포도,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도 두렵지 않으며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공화국은 영광과 승리만을 떨치며 억년청청할것이다.

본사기자 손지성

# 천상천하 으뜸가는 인민의 락원입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명철

하늘이 낸 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조국의 력사를 회억할수 있다는것은 그 자체가 나라와 인민이 받아안은 대통운입니다.

력사의 9월을 맞으니 전인미답의 일흔다섯고개를 승리와 영광의 봉우리들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헌신사가 이 가슴을 더욱 뜨겁게 울려줍니다.

건국의 첫 기슭에서 어버이주석님을 모시고 신생조선의 국기를 띄우는 이 나라의 아이들조차 너무도 잘 알고있는 9월 9일입니다.

## 건국대업의 구세주를 우러러

나의 할아버지에게는 그 의미가 류달랐으니 사유를 말하자면 아마도 많은 세월을 소급해야 할것입니다.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여나 망국의 치욕과 가난의 멍에를 함께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던 나의 할아버지, 그 시절 풀벌레우는 산자락에서 할아버지가 바라본 하늘엔 동정의 빛을 뿌려주는 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학비난으로 하여 끝끝내 학교를 중퇴한 할아버지는 그후 고향 칠골로 돌아와 어버이주석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욱선생님께서 교감으로 계시던 창덕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하였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였습니다.

부디 우리 조선이 신화속의 《에덴동산》이 되기를 바랬고 눈물속에 살아가는 우리 조선민족이 행복의 《천사》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이야기했듯이 열심히 받들어온 《하느님》도 그 소원을 풀어주지 못했고 불우한 인생들을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돛대도 삿대도 없는 일엽편주의 신세로 무연창파우에서 민족의 푸른 하늘을 찾아 몸부림치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1937년 6월은 바야흐로 펼쳐질 운명의 하늘을 확신하게 된 잊지 못할 나날이였습니다.

어느날 할아버지가 《동아일보》 6월 5일부의 석간을 보게 되였는데 2면 최상단에 큰 활자로 《공산군 대부대 월경습래, 주재소 등 관공서에 충화, 4일 오후 갑산 보천보에서》라는 제목이 찍혀져있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소식이였습니다. 조선의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숨막히는 세월에 정말 가슴이 뛰고 피가 끓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할아버지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였습니다.

보천보를 들이쳐 겨레의 멍든 가슴에 재생의 서광을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이 다름아닌 10여년전 자기가 담임했던 창덕학교의 김성주학생이라는것이였습니다.

열두살의 어리신 나이에 혼자서 두나라 지경을 넘어 천리길을 걸으신분, 그때 벌써 영웅남아의 기상이 풍기는 비범특출한 인품과 자질, 뜨거운 애국열로 온 학교의 선망을 모았던 10대의 인걸.

할아버지는 걸출한 위인과 남다른 인연을 맺은 자신의 인생이야말로 더없이 복받은 생이며 온 민족이 우러르는 **김일성**장군님은 이 나라의 운명을 구원하라고 하늘이 낸분이심을 깨달을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혹의 경지를 초월한 인간의 감정은 절대적인 숭상을 낳는 법입니다.

나의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믿고 살 운명의 하늘은 곧 **김일성**장군님이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출중한 위인상에 절대적으로 매혹된 할아버지였기에 전설처럼 전해져오는 김장군이야기를 생의 젖줄기로 간직하고 살았으며 해방후 시인 리찬이 《**김일성**장군찬가》를 창작했을 때에는 늘 시의 구절구절을 읊고 다니였다고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탄생을 선포하던 력사의 그날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국기를 눈물속에 바라보며 할아버지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하늘에 빌어 인간의 운명이 달라진 례가 없고 하늘을 믿어 민족이 흥한 력사가 없었으니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불행했던 우리 민족에게 영원한 복락을 안겨주시는 현세의 대성인, 우리모두가 떠이고 살 운명의 하늘이시다.》

어찌 이것이 75년전의 고백만이라 하겠습니까.

할아버지의 한생은 그대로 조선의 하늘, 민족의 위인에 대한 매혹과 경모의 마음이 나날이 뜨겁게 달아오른 열렬한 태양숭배의 한생이였습니다.

생애의 말년까지 국가의 중요직책을 체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외국출장길들에서 겪은 이름 못할 감정들을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산 나의 아버지입니다.

불꺼진 거리와 마을들을 차창으로 내려다보며 쓰라린 마음안고 출장길에 올라 네온등이 번쩍이는 서방세계의 번화가에 내리고나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졌다고 합니다.

비록 조국이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세상에서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확신과 자부심때문이였다고 아버지는 회고하군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국제적인 종교행사참가를 위해 한달넘게 미국에 머물러있던 주체84(1995)년 7월 어느날이였다고 합니다.

한번은 대표단성원들과 함께 산보를 하다가 가로수밑에서 아이를 낳고있는 한 녀성을 목격하였는데 알아보니 진통이 와 병원에 달려왔지만 해산비와 입원비가 모자라 쫓겨났다는것이였습니다. 보다 경악스러운것은 주변사람들의 랭담한 태도였는데 신사복을 쭉 빼입은 미국시민들이 그 불쌍한 녀성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길가의 더러운 오물을 남다른 특전을 지녔던 나의 할아버지(강량욱)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 뜻깊은 시각에 붓을 들어 격정을 터쳤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3대를 내려오며 숭앙해온 천출위인들을 경건히 우러르며 선친들의 마음까지 합쳐 조국찬가, 위인찬가의 글월을 삼가 엮어봅니다.

## 만고의 대성인에게 매혹되여

생전에 나의 아버지(강영섭)는 자주 이런 말을 외웠습니다.

시련은 인간이나 사회의 진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인류가 처음 보는 지상천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은 력사의 가혹한 시험대우에서 이미 증명되였다. …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래동안 활동해온 아버지는 사업특성상 남다른 대하는것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련민과 환멸의 감정이 엇갈리는 속에 이상하게도 짜릿한 향수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습니다.

너와 나 따로 없는 우리가 되여 어디서나 미담미거의 꽃송이들이 백화만발하는 내 나라가 명암처럼 대조되며 몹시도 돋보였습니다.

《경제적풍요》를 자랑하면서도 인간세상고유의 정은 꼬물만큼도 없는 서방세계가 쟝글과 다름없다면 산모를 위해 직승기가 날고 저마다 특류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고 부모없는 아이들, 자식없는 로인들의 가족이 되여주는 우리 조국은 말그대로 인덕이 차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우리 조국의 실상에 대해 소상히 전해들은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무척 놀라워하면서 그런 이야기는 성서에서도 보지 못하였다, 사랑의 《천사》들이 사는 당신네 나라야말로 진짜 천국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생활상곤난은 있을지언정 미담과 미덕이 전설의 화원을 이룬 나라,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에 언제인가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그리스도교국제회의에 참가한 세계교회협의회의 한 목사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나는 조선을 방문할 때마다 고난속에서 사회의 기초인 인간관계가 어떻게 헝클어지는가를 관찰하려 하였다. 도출한 결론은 첫째로 나의 목표설정자체가 잘못되였다는것, 둘째로 조선은 도덕적부자의 나라이라는것, 셋째로 조선은 이미 천국의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이다.》

세상에 다시없을 인덕의 화원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토양으로, 자양으로 하고있습니다.

고난의 그 나날 누구보다 고생많으신분이 다름아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심을 이 나라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있습니다.

좀처럼 눈물을 안보이던 나의 아버지가 해외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주체86(1997)년 8월 어느날 저녁 어머니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였다던 심중의 고백이 내 가슴을 파고듭니다.

소뿔도 휘여진다는 삼복철에 한결 선선한 외국에 가있었지만 전혀 개운함을 몰랐다고, 이 불더위속에서도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 소식을 전해들으며 뜨거운것을 삼키군 했다던 그 절절한 토로.

한여름철에도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새하얀 와이샤쯔목깃이 땀에 젖는것을 볼수 없는데 우리 장군님께서만 푹 젖은 야전복의 목깃이 마를새 없다고, 우리모두가 죄를 짓고있다며 아버지는 끝내 오열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인민을 울린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것이겠습니까.

언제인가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해방전 아홉자식을 키우느라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한채 한생 손끝에 피가 마를새 없이 고생하다가 숨진 한 어머니에 대한 가슴쓰라린 이야기를 일군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자신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 인민들을 보살펴주려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것이였습니다. 자식을 위한 고생이 곧 락으로 되는 어머니사랑에서 그 깊이와 끝을 헤아릴수 없는 인간에 대한,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하고도 진실한 사랑이 흘러나왔던것이며 그로 하여 우리 장군님께서는 쪽잠과 줴기밥으로 삼복철강행군, 눈보라강행군을 이어가시면서도 세상에 더없는 행복을 느끼셨던것이였습니다.

력사의 모든 성인군자들을 다 꼽아봐도 이런 고결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성경책을 전하겠다며 왔던 미국의 이름난 목사가 북조선에는 교리를 전도할 필요가 없다며 그냥 돌아갔고 서유럽의 한 그리스도교성직자는 인간에 대한 열화의 사랑으로 지상천국을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성인은 오직 한분뿐이시라며 **김정일**장군님께 동조각상 《위대한 성인》을 삼가 선물로 올리였던것입니다.

자기를 불태워 만물에 아낌없이 자양을 주는 저 하늘의 태양처럼 자신의 만고풍상으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민에게 천복만복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

그 위대한 애국애민의 자욱자욱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 위대한 사랑의 정치경륜에 의해 우리 조국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세상에 다시없을 리상사회로 빛날수 있었던것입니다.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가 계시고 화목의 정이 넘치며 환희로운 미래가 약속되여있는 곳, 세상에 이보다 더 따스하고 풍요한 리상사회는 있을수 없습니다.

인간사랑의 위대한 태양이 밝게 비치는 내 조국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류의 리상사회, 지상의 천국인것입니다.

## 불세출의 령장을 모시여 영원한 제일강국

흔히 평화는 인류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평화를 자기의 중요한 리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허나 지성과 교리만으로는 평화를 수호할수 없습니다. 해방직후 사랑과 협력의 그리스도교정신을 설교하던 나의 선친들이 돌덩이처럼 굳어진 손에 총을 거머쥔것도 교리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수 없기때문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저녁으로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지경밖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련민의 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둘러보면 쟝글화되여버린 이 행성에서 나날이 더욱 안전하고 강고한 억척성새로 솟아오르는 나라는 우리 조국뿐입니다.

전세계를 경탄시킨 사상최고의 대정치군사축전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장에 이 마음을 다시 세워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열을 받으며 열병광장을 노도쳐간 전설적인 근위사단, 근위련대 상징종대들과 전선군단종대들,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

그중에서도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낼 조선의 절대적힘의 실체들인 전략무기종대들의 도도한 격류가 때없이 이 가슴에 파도쳐오군 합니다.

볼수록 정이 가고 힘이 솟는 그 미싸일들은 단지 절대병기로만 안겨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침략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천국의 평화와 안전을 꿋꿋이 수호하는 백년요새, 천년방벽, 만년보루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십자를 그으며 오랜 세월 빌었어도 볼수 없었던 평화의 억년성새가 드디여 내 조국땅에 높이도 솟구쳐오른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는 평화수호의 힘이 세질수록 국가의 존엄과 지위도 함께 높아가는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싶습니다.

지금도 6년전인 주체106(2017)년 7월 4일의 감동과 충격이 어제같습니다.

그날 우리 공화국의 첫 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가 단번성공하였다는 장쾌한 소식을 나는 아쉽게도 외국출장길에서 들었습니다. 허나 오히려 몇배나 더 큰 《소득》을 얻었다는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전세계가 조선충격에 빠진 바로 그날 저녁에 도이췰란드의 라이프찌히에서는 세계개혁교회친교회 제26차총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참가하에 성만찬회가 열렸는데 저저마다 우리 대표들을 찾아와 열렬한 축하를 해주는것이였습니다.

조선이 정말 대단하다. 미국의 《독립절》에 이렇게 큰 《선물보따리》를 안겨줄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조선말고 또 어데 있겠는가. 조선은 명실상부한 제일강국이다. **김정은**령도자님의 배짱과 담력, 령도술은 세계최고의 최고이다. …

만장의 경탄과 부러움속에 성찬식이 우리 조국의 쾌승을 축하하는 경축모임으로 바뀐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은 부풀대로 부풀고 흉벽에서는 심장의 세찬 박동소리가 쾅쾅 울려와 미처 억제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 하늘끝에 닿은 내 조국의 존엄과 지위가 이 작은 가슴에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흥분과 격정의 파도를 일으켰던것입니다.

갑자기 내 나라 땅속에서 보화가 터져나온 결과가 아니였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념려해서 도와준 덕도 아니였습니다.

조선의 국위를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만고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매혹과 흠모, 감사의 정이 북받쳐와 정녕 목이 메여올랐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눈시울이 젖어옵니다.

과연 어떤 희생을 대가로 안아온 최강국의 영광입니까.

위대한 수령님들의 강국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해 눈내리는 새벽길, 풍랑길, 폭우길 지어 생명을 내대야 하는 사선길에도 결사의 맹약을 안고 주저없이 나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올해 3월 신문을 보다가 저으기 놀랐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중핵전략공격무기의 완성을 위해서만도 무려 29차의 무기시험을 직접 지도하시였다는것입니다.

하다면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탄생하여온 주체무기, 첨단전략무기들마다에 바쳐진 그이의 헌신과 로고를 다 합친다면 태양의 열도에 비길 그 무한한 희생의 세계를 어느 누가 제대로 헤아릴수 있겠습니까.

해마다 열병광장을 누벼나가는 최첨단무장장비들은 비단 첨단군사과학기술만의 산물이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의 락원에서 살게 하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의 응결체, 숭고한 헌신의 산아였던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피와 땀을 바치신것만큼 평화수호의 힘이 억세여지고 그이께서 사선길을 헤쳐가신것만큼 내 조국의 존엄과 국위가 높아져왔던것입니다.

진정 무궁한 이 조선 길이 빛내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으로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우리 조국은 높이도 올라섰고 높이도 비약했습니다.

적대세력들의 끝모르는 극악한 제재봉쇄속에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가져본적 없었던 강력한 힘, 절대적인 힘을 비축하고 아침해돋이마냥 솟구친 천하제일강국.

그 누구의 압력과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 인민의 운명을 당당히 수호하며 결심한 모든것은 반드시 거창한 현실로 펼쳐놓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불굴의 나라.

이것이 오늘날 세계를 굽어보는 존엄높은 내 조국의 진모습이며 찬란한 국위입니다.

절세위인들의 거룩하신 영상과 빛나는 존함으로 영광떨치고 열화의 사랑과 불같은 헌신에 떠받들려 전진해온 우리 조국의 75년!

그 빛나는 려정엔 번영의 나래 돋치고 해솟아 맑은 아침엔 무궁한 미래가 찬란히 비꼈으니 더 높아진 우리의 하늘, 더 밝아진 9월의 대지에서 나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리상사회인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의 750년, 7 500년에도 위인들의 존함과 더불어 년년이 빛을 뿌리며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입니다.

# 누리에 떨치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지위

공화국창건 7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나게 경축한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강국의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넘쳐나고있다.

국제사회도 세계의 최강국인 공화국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 절대적힘을 비축한 최강국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자주권과 존엄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가 창건된 첫날부터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압살의 광풍을 몰아왔다.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려고 조선전쟁의 불도 질렀고 쓰디쓴 참패를 당한 후에도 반공화국책동에 광분하였다.

하기에 공화국은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국가방위력강화에 큰 힘을 넣어왔다.

지나온 10여년의 나날들에만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실현하고 핵무력정책의 법화로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고착시켰다.

지난 7월 공화국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성대하게 진행한 열병식은 세계적인 최강국인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다시금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였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수 없는 무진막강한 국력을 비축한 공화국의 위상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은 정말 신화적인 나라이다.》, 《조선이야말로 진짜 세계의 유일초대국이다.》, 《가속적으로 강해지는 조선, …5년, 10년후의 조선을 상상하기 어렵다.》, 《조선의 불가항력은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공화국의 최강의 힘은 단지 군사적힘으로만 계산되는것이 아니다.

조선에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정치사상적힘, 일심단결의 거대한 힘이 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야말로 세계에서 오직 조선만이 가지고있는 가장 위대한 힘이다.

세계적인 최강국인 조선을 당할자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 자력자강의 강국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종당에는 예속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자력자강만이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자력갱생, 자력자강은 조선의 불변침로이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자력갱생을 번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부흥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가고있다.

지난 10여년간은 공화국이 무엇으로 억세고 강한가를 보여주는 축도와도 같다.

쉽게는 넘을수 없었던 력사적단계에서 공화국이 필승의 무기로 더욱 억세게 틀어쥔것은 자력자강의 기치였다.

공화국의 강대성을 상징하는 절대병기들은 과학의 산물이기 전에 자력자강의 혁명정신이 벼려낸것이며 교육과 보건,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중요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성되여가는 현실역시 자력자강의 고귀한 결실들이다.

최근년간 일떠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문명과 혜택을 안겨주고있는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화성거리와 대평지구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중평온실농장과 련포온실농장,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 훌륭한 농촌살림집들만 놓고보아도 자력자강의 위대한 생활력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산생되는 정치적불안과 분쟁, 재해와 위기속에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삶마저 포기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민이 바라는것은 무엇이나 세계적수준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그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영원히 위기와 충격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담보할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충만된 오늘의 세계에서 경제강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선의 전진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 조선이야말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앞으로 이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강력한 경제체로 될수 있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사회주의문명을 자랑하는 호화주택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미국의 가중되는 제재와 압살공세속에서도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웃음소리는 곧 조선의 승리를 의미한다.》, 《조선은 말그대로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조해내며 번영의 꿈을 이루어가고있다.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최상의 결실을 거두어가는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상에 탄복을 금할수 없다.》고 경탄하고있다.

그 어떤 세파와 동란에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으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공화국이 가까운 앞날에 인민의 천하제일락원으로 될것이라는것이 세인의 일치한 평이다.

## 세계정치의 중심국

지금 세계는 불공정한 국제질서를 자주와 정의의 힘으로 허물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추동해나가는 위대한 나라, 정의의 대변자를 보고있다.

조선은 자기의 주견과 결심에 따라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여 세계정치무대의 중심에 우뚝 솟구쳐오른 자주강국이다.

자주강국은 위대한 지도사상과 그 구현인 자주정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자기의 옳바른 정치철학을 가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모든 일을 배짱있게 내밀수 없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아무리 발전된 경제력을 자랑해도 렬강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굽신거리고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면서도 추종해야 하는 나라는 사실 가련한 정치적머슴군에 불과하다.

민족자존은 곧 주체이며 주체는 우리 공화국의 상징이다.

사회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의 운명을 걸머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정치적압력과 군사적공갈, 경제적압박속에서도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자주의 궤도따라 용용히 나아가는것이 공화국의 기상이다.

자주정치를 실현한다는것은 대내적으로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리익에 맞게 세우고 관철해나간다는것이며 대외적으로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제 할 소리를 다하며 결심한 일을 끝까지 내민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공화국은 그 누가 뭐라고 하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주체의 강국이며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하여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모르는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다.

렬강중심의 낡은 국제질서를 허물고 정의의 대변자, 진리의 옹호자, 평화의 수호자로서 자주시대의 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과 세련된 자주외교는 진보적인류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세계의 많은 정계인사들과 언론들은 《오늘 국제사회에는 온갖 불의를 짓눌러놓으며 행성을 자주의 궤도를 따라 드팀없이 인도해가는 조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세계질서의 구도가 형성되고있다.》, 《령토의 크기로 보나 인구수로 보나 작은 나라인 조선이 세계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것은 보통상식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조선은 확고히 세계정치의 중심국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찬탄하고있다.

폭제와 강권의 피수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진정한 강국, 국제사회에서 무시할수 없는 발언권을 가진 나라, 대국들도 존중하는 세계정치의 중심국이 우리 공화국이다.

오늘처럼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세인의 존경과 찬탄의 목소리가 높아진것은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기할 사변이다.

## 위대한 태양의 나라

누리에 떨치는 조선의 높은 존엄과 국위는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배짱, 애국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인민의 의사를 담아 국가발전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천명하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변천되는 력사발전의 추이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실천강령과 불멸의 지침들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또한 그처럼 간고하고 복잡한 형세하에서도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기적을 안아오시였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어느 특정한 분야에 업적을 남긴 이름난 정치가들, 위인들을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그토록 짧은 기간에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기적을 다계단으로 이루어내신 위인중의 위인을 알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계의 태양》,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위대하고 훌륭한 령도자》, 《세계적으로 제일 강하신분》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세계가 우러르는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인민의 존엄이 만방에 빛나고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국위가 온 세상에 힘있게 떨쳐지고있는것이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은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국위를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김금순

단상

## 삼복에 대한 생각

9월이라지만 아직도 해볕은 따갑기만 하다.

폭염에 한껏 달아오르는 몸을 식히려고 사람들의 발길이 저저마다 바다가나 수림속 경치좋은 피서지로 향한다.

저 동해기슭의 마전이며 시중호, 송도원해수욕장과 서해의 룡수포, 천하절경 묘향산과 칠보산 그 어디 가나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그칠줄 모른다.

문명의 휴양지들과 풍치수려한 명소마다에 꽃펴나는 인민의 웃음꽃향기에 이 몸도 흠뻑 취해보느라면 절로 깊어지는 생각이 있다.

사계절 질줄 모르는 화창한 이 행복과 즐거움의 기쁨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오는것인가.

몇해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양묘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이 눈앞에 밝혀온다.

원산지방의 낮최고기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초복의 일요일, 그날 오랜 시간 현대적으로 꾸려진 양묘장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대군인부부의 살림집을 찾으시여 가정살림형편을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후날 그들내외는 그이의 옷이 온통 땀으로 푹 젖어든게 너무도 안타까와 선풍기를 돌렸지만 날씨가 어찌나 무더웠던지 더운 바람이 나오는것만 같아 눈물이 나도록 속상했다며 그때의 심정을 절절히 토로하였다.

삼복철과 더불어 전해지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헌신의 이야기가 어찌 이들만의 토로만이랴.

례년에 없이 무더웠던 이해 삼복철의 날과 달들이 또다시 주마등마냥 흘러간다.

7월 11일에 시작된 초복으로부터 8월 10일 말복에 이르는 한달어간에 신문과 TV방송으로 전해진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은 무려 10여차, 삼복철은 끝났어도 아직 채 가셔지지 않은 무더위의 오늘까지도 이어가신 현지지도는 수십여차.

정녕 불러보기만 해도 가슴뻐근하다.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오르는 격정속에 눈시울 뜨거이 어려오는 숭고한 화폭들.

사랑하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삶과 미래를 억척의 힘으로 지켜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 폭염을 뚫고 찾으시였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의 시험발사장과 여러 단위의 중요군수공장들이며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와 해군사령부, 달아오른 해풍에 항구의 모래알이 뽀얗게 일어번지던 신형잠수함의 진수식장.

큰물피해로 험하디험한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이며 바다물이 허리치던 안석간석지피해복구현장과 금성뜨락또르공장, 북중기계련합기업소…

위대한 전승의 명절과 75돐기의 년륜을 아로새기는 공화국의 탄생일을 민족사적인 대경사들로 빛내여주시려 우리 원수님 한몸이 그대로 애국의 열원이 되여 바치신 불같은 헌신과 로고의 그 무수한 낮과 밤들을 어이 다 헤아릴수 있으랴.

예로부터 삼복의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으로 써오고있다.

무더운 여름철에 세번은 쉬여가라는 뜻일것이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 남들이 다 쉬여가는 삼복철에 초강도강행군길을 가고 또 가시며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만을 안겨주고계시니 복더위도 무색케 할 그 뜨거운 인민사랑, 멸사복무의 헌신속에 이 땅에서는 삼복의 《엎드릴 복》자가 《복 복》자로 바뀌고있다.

그래서 우리 인민 누구나 눈물속에 뜨겁게 터치고 또 터친다.

우리의 삼복철은 힘들어 쉬여가는 삼복철이 아니라 행복이 찾아오는 《3복》철이라고.

그렇다.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걸어보지 못한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의 삼복철강행군, 철야강행군길이 있어 행성에 둘도 없는 류다른 《삼복철》이 이 땅에 태여났고 그 길우에 바쳐진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인민의 《3복》이 《30복》, 《300복》으로 끝없이 만발하는것이 아니랴.

지금도 공화국창건 75돐경축대공연이 펼쳐진 만수대의사당앞광장에 진감하던 수십만인파의 격정과 환희, 기쁨과 희열의 환호성이 거대한 진폭으로 메아리쳐온다.

정녕 그것은 불면불휴의 애국헌신과 열화같은 인민사랑으로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방에 떨쳐주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려퍼지는 만복의 세월을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자애로운 어버이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과 끓어오르는 감사의 정의 분출이였다.

하기에 이 시각도 인민을 위해 새겨가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을 눈물겹게 따라서며, 경애하는 그이의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며 이 나라 천만자식만이 아닌 이 땅의 산천초목도 목메여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있다.

이 한밤도 먼길 가실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아침저녁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

리금주

수필

## 뻐스표 한장의 무게

얼마전 잡지를 보던 나는 한 기사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어느한 자본주의나라의 임신부가 병원을 네곳이나 헤매다가 돈이 모자라 끝내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고 숨지였다는 사실…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는 상상도 못할 사실앞에서 온몸을 엄습하는 경악감과 함께 가슴아픔을 금할수 없었다.

곧 태여날 새 생명을 지닌것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의 더없는 축복과 보호를 받았어야 할 그 녀인의 참혹한 죽음이 같은 녀성인 나에게 안겨주는 충격은 너무도 컸다.

문득 나의 뇌리를 치는 다른 한 녀성의 모습이 있었다.

언제인가 취재길에서 만났던 서성구역 상흥소학교 교장 한미화녀성의 이야기.

《뻐스표 한장을 들고 나선 걸음이였어요.》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20여년전 한미화녀성은 두번째로 임신하게 되였다.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위해 평양산원으로 가는 길에 그가 들고 나선것은 다름아닌 작은 뻐스표 한장이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무료나 다름없는 뻐스표였다.

그러나 그 뻐스표 한장을 가지고 산원행뻐스에 오른 그때부터 시작된 국가의 혜택이 과연 얼마나 크나큰것인지 그는 그때 다는 알수 없었다.

무심코 들어선 산원에서 그는 깜짝 놀라게 되였다.

종합검사실에서 세쌍둥이임신이 확정되고 임신유지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았던것이다.

의사, 간호원들의 관심속에 중환자나 되는듯이 밀차에 정히 실려 그가 옮겨간 곳은 입원실이였다.

그때로부터 그의 임신 전 기간은 고스란히 산원의 침대에서 흘러갔다.

임신 8개월만에 낳은 아들 세쌍둥이는 어머니의 몸에서 곧 보육기로 옮겨졌다.

3대의 보육기를 둘러싸고 값비싼 약들이 아낌없이 흘러들며 또다시 수개월.

출생당시 몸무게가 겨우 1.2㎏밖에 안되던 세쌍둥이 둘째도 정상체중으로 되여 녀성은 마침내 평양산원문을 나서게 되였다.

한품에는 다 안기 어려운 사랑의 선물을 한가득 실은 차가 수많은 의사, 간호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그를 따라섰다.

3개의 은장도며 모포와 솜내의, 세타, 양복지, 꿀, 졸인젖, 사탕가루…

뻐스표 한장을 들고 집을 나서서 근 200일간의 나날에 받아안은 혜택과 이 모든 선물앞에서 한미화녀성은 그냥 눈물을 흘릴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 작은 가슴에 다 받아안을수 있는 혜택이였던가.

필요한 모든 설비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종합검사실과 해산실, 미량가감주입기와 해산감시장치, 각종 소모품들과 의약품등 그에게 든 해산봉사비만 해도 수만US$의 액수에 달하였다.

보육기안의 저체중아인 세쌍둥이들은 10여명의 의사, 간호원들이 밤낮을 이어 교대하며 전문으로 담당하여 키웠다. 이 기간에 들어간 비용을 돈으로 계산하면 자본주의나라에서 평범한 근로자가 근 한생을 두고 축적해야 할 엄청난 돈이다.

허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였다.

세쌍둥이들은 다시 육아원과 애육원에 보내여져 전문적인 보육교양을 받게 되였다.

이 비용마저 전부 국가가 부담하였다.

결국 그가 지출한 돈은 산원까지 오는데 든 뻐스표 한장뿐이였다.

낳기만 하였을뿐 젖 한모금 먹여본적이 없이 나라에서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며 키우고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문득 떠오른 생각은 무엇이였던가.

(내가 만일 이 제도가 아닌 저 자본주의땅에서 우리 아이들을 낳았다면?…)

너무도 분명하고 달리는 될수 없는 운명이였다.

그럴수록 눈물겹도록 고맙고 아름찬 이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하랴 하는 불같은 생각으로 퇴근길이라는것도 잊고 정신없이 다시 학교로 발길을 돌리군 하였던 그였다.

온몸에 솟구치는 힘과 열정을 성스러운 교단에, 새별같은 눈을 깜빡이며 자기를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붓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렇게 달려온 후대교육의 33년세월이였다.

그런데 오직 보답의 의무만이 있다고 생각해온 마음뿐이였던 그를 당에서는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광의 단상에 또다시 내세워주는것이 아닌가.

그의 남다른 인생이 나에게 안겨주는 여운은 컸다.

뻐스표 한장.

우리 생활에 대하처럼 흘러드는 사회적혜택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너무도 작은 뻐스표 한장이 이렇듯 크나큰 인민적시책의 고마움을 새삼 깨우쳐주며 이 가슴에 천근의 무게로 느껴지기는 처음이였다.

뻐스표 한장의 무게.

그것은 인민을 위함에 당도 국가도 제도도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나라인 우리 안겨사는 품의 소중함의 무게이고 그 품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모두가 받아안는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의 무게이다.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뜻이 품어안아 사랑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고 천만가지 소원을 다 꽃피워주는 은혜로운 어머니 내 조국, 후손만대의 행복도 미래도 오직 그 품에만 있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더없이 소중한 무게였다.

해산비가 없어 길가에서 아이를 낳고 불행하게 운명해야만 했던 자본주의나라의 불쌍한 녀성은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하였을 한미화녀성의 복된 인생은 지금도 나에게 뜨겁게 가르치고있다.

뻐스표 한장의 무게를 잊지 말라고.

소중한 이 제도를 애국의 한마음으로 더욱 빛내이라고.

신순영

# 범죄의 력사

## 참혹한 전란과 불행만을 강요한

미제가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은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죄악의 력사, 범죄의 력사이다.

미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제는 괴뢰정권조작을 위한 5.10단선 당일에 무려 500여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50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리고 1948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는 제주도에서 3만 5 0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이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폭로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는 전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 지난 세기 50년대초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르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재부들을 파괴략탈하였다.

로근리학살만행과 영동대학살만행, 신천대학살만행을 비롯하여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만행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전쟁 3년간 미제는 서울에서 13만 6 000여명, 경기도에서 16만 2 500여명, 충청남북도에서 16만 7 000여명, 전라남북도에서 38만 8 000여명, 경상남북도에서 18만 9 500여명, 남강원도에서 19만 7 000여명의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또한 조선전쟁 첫날부터 공화국의 도시들과 농촌들, 평화적산업시설들과 학교, 병원, 기타 문화시설들에 대해 폭격과 포격을 가하여 재더미로 만들었으며 지어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세균 및 화학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았다.

전후에도 미제는 괴뢰지역에서 치떨리는 범죄행위들을 그칠새없이 감행하였다.

나물캐는 소녀를 《펑》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 의정부집단륜간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미제가 감행한 살인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하지만 미군범죄자들은 예속협정인 《한미행정협정》의 보호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미제는 새 전쟁도발책동도 년대와 년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팀 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포커스 렌즈》 등 미국이 력대적으로 벌린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압살하고 우리 민족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한 침략전쟁연습들이였다.

최근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은 극히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단계에서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일본과 괴뢰우두머리들을 워싱톤주변의 캠프 데이비드별장에 끌어들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한데 이어 괴뢰들과 그 실행을 위한 《을지 프리덤 쉴드》합동군사연습을 력대 최대규모에서 벌려놓았다.

이처럼 근 80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미제의 강점사는 미국이야말로 전체 조선인민에게 참혹한 전란과 불행만을 강요한 포악한 침략자, 피에 주린 야수, 흉악한 날강도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그 무슨 《혈맹》이니, 《굳건한 한미동맹관계》니 하면서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역적무리들이다.

력사와 현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윤석열역적패당을 비롯한 매국역적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언제 가도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고 온 민족이 편안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 은 혁

#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이다!》, 《일본정부 대변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 핵오염수방류를 강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괴뢰지역에서 이를 비호두둔해나서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배격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전국민중행동》, 《환경운동련합》, 《록색련합》,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민주로총》, 《전국비상시국회의》, 《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스도인련대》를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제주도 등 각 지역에서 일제히 항의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규탄성명들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후안무치한 핵오염수방류책동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대일굴욕행위를 준렬히 성토하였다.

특히 《민주로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전국비상시국회의》 등의 단체들은 《대통령실》앞에서 《핵오염수해양투기공범 윤석열규탄!》, 《윤석열도 공범이다!》, 《매국노 윤석열!》이라는 선전물들을 들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수 없다, 윤석열《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규탄하며 반《정부》투쟁을 벌리였다.

지난 8월 26일에도 각계층 단체들은 야당들과 함께 서울에서 《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윤석열〈정부〉규탄 범국민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윤석열이 《한》미일동맹강화를 위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용인하였다고 폭로하면서 윤석열심판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은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일심동체로 방조한 철저한 주범이며 친일역적, 특등매국노이다, 태평양은 윤석열과 기시다의 핵쓰레기하수구가 아니다, 일본정부의 대변인으로 자처한 윤석열《정권》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러면서 련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초불집회, 규탄시위, 총집결대회, 일본대사관항의방문 등의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서울에서는 《일본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방류용인 윤석열〈정부〉규탄 2차 범국민집회》와 윤석열역도퇴진을 위한 제55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였다.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은 《일본핵오염수투기 철회!》, 《윤석열탄핵!》 등의 글이 씌여진 대형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을 들고 일본은 인류를 향해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국이다, 지은 죄를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핵오염수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도발행위이고 핵테로행위이다, 오염수는 아무리 정화하여도 오염수인데 윤석열은 앞장에서 핵오염수방류를 묵인하고있다고 하면서 인류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일본과 이에 추종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지난 9일 또다시 열린 《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윤석열〈정부〉규탄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야당의 한 인사는 《윤석열〈정권〉은 후꾸시마핵물질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으라고 했더니 결국 용인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안전하다고 선전까지 하고있다.》고 하였다.

《진보당》의 전 상임대표도 《윤석열은 일본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속까지 왜놈》이라고 하면서 《모든 야당은 하나로 뭉쳐 윤석열〈정권〉퇴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였다.

범국민대회참가자들은 《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정부 대변하는 윤석열〈정부〉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웨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경향신문》, 《세계일보》, 《련합뉴스》를 비롯한 언론들과 전문가들 역시 윤석열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한번도 반대한적이 없으며 내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일본이 뻐젓이 핵오염수방류를 강행한것은 기시다정부의 대변인, 둘러리, 방패막이역할을 스스로 맡아해온 윤석열때문이다, 일본의 과거사부정과 《독도령유권》주장에 이어 핵오염수방류문제까지 동조하는 윤석열은 일본의 하수인이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는 기시다와 윤석열이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비호두둔하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는 각계층의 이러한 투쟁은 천년숙적 일본의 과거범죄를 덮어주고 재침의 길을 열어준것도 모자라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 미래까지 위협하는 섬나라족속들과 한짝이 되여 돌아가는 윤석열역적패당을 하루빨리 쓸어버리려는 민심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한 복 순

# 망해가는 집안의 살풍경

당리당략을 위해 싸움질만 일삼는 괴뢰정치판을 두고 사람들은 《싸움판민주주의》, 《정치오물장》이라고 침을 뱉고있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계기로 벌어지는 여야간의 치렬한 싸움도 썩을대로 썩은 괴뢰정치판의 추악한 진모습을 유감없이 펼쳐보이고있다.

괴뢰언론 《련합뉴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총선승리가 지상과제〉라며 결전의 각오를 다졌다. 특히 여당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은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세력과 싸울수밖에 없다.〉고 했고 〈민주당〉 대표는 이를 〈대국민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정권폭주〉를 저지하겠다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야당대표의 검찰수사와 별도로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법개정안〉과 〈방송3법〉 등 여러 쟁점법안이 정국파행을 몰고올 뢰관으로 되고있다. 이미 야당은 〈국회〉 과반수를 앞세워 해당 법안의 표결처리를 벼르고있고 이에 여당은 〈대통령〉거부권행사를 공언한 상태에서 언제 정국파행이 빚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야사이의 치렬한 대치국면에 대해 전하였다.

괴뢰언론 《뉴시스》도 《이번 정기〈국회〉는 래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이여서 여야간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사활을 건 대결을 벌릴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으며 다른 한 언론도 《래년 4월 총선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라 치렬한 정국주도권다툼이 불가피한 가운데 벌써 정치,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여야가 충돌하고있어 험난한 려정이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언론들의 이러한 평을 실증이라도 하듯 여야당것들은 정기《국회》 첫시작부터 서로 물고뜯는 개싸움질을 벌리고있다.

이에 대해 괴뢰언론 《매일경제》는 《1일 정기〈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여야간 기싸움이 치렬하다.》, 《여당은 독립운동가 동상철거문제를 띄우며 리념대립에 나섰고 야당은 〈력사쿠데타〉라고 맞서는 등 여야모두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렬한 공방전을 벌리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5일에 시작된 《국회대정부》질문때에도 해병대사병의 사망사건조사에 대한 윤석열역도의 개입의혹을 들고나오면서 역도의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세력과 《발언을 취소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반발해나선 여당패거리들과의 싸움질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얼마나 회의장이 스산하였으면 중재에 나선 괴뢰국회의장이 《초등학교모임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이를 두고 괴뢰언론들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막말, 극언공방이 눈뜨고 못볼 지경이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지 일주일째 여야가 서로를 향해 원색적비난을 쏟아내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여야가 〈쓰레기〉, 〈탄핵〉, 〈사형〉 등 너나 할것없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있어 정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민생은 3중고(물가상승, 환률상승, 리자률상승)에 신음하는데 정국주도권잡기에 혈안이 된 여야간의 싸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차마 눈뜨고 볼수 없다는 뜻)이다.》고 하면서 《여야가 각각 정부권력과 의회권력을 무기삼아 한치도 양보없이 긴장을 높여가고있다. 그러는 사이 예산심사는 멈춰섰고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도 실종됐다. 민생은 좌초일보직전이다.》고 여야당것들을 비난하였다.

괴뢰여야정치세력들사이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자파의 권력확장을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는 정치시정배들의 란투극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살기도 힘들다.》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한 싸움질에 미쳐돌아가는 시정잡배들에게 민심이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주 광 일

# 만평 오명으로 본 《룡와대》의 추물

아마도 이 세상에 윤석열이와 같이 치욕의 오명을 많이 가지고있는 추물은 없을것이다. 두엄더미는 안으로 파들어갈수록 더 역겨운것처럼 날이 갈수록 더더욱 혐오스러움을 자아내는 역도에게는 오명도 많아 세간에서는 역도를 두고 《최고의 오명보유자》라고 부르군 한다.

그야말로 살아숨쉬는 《오명백화점》이라고 해야 할지.

그 숱한 오명의 딱지만큼이나 악명을 떨치는 《룡와대》추물의 추악한 행태를 몇가지 오명을 통해 해부해본다.

## 《윤 완 용》

리완용, 지난 세기초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의 이름으로서 오늘까지 사대매국과 반역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다.

윤석열역도가 바로 그 오명, 그 추명으로 불리우고있다. 성은 비록 윤가라 해도 완용이란 이름이 그 성뒤에 따라붙었다.

실지 역도의 짓거리는 매국역적 리완용도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제 집 안방에 도적떼를 안내하듯이 《욱일기》를 내건 일본군함을 독도수역에 끌어들이지, 일본《자위대》가 북침에 나서는것을 묵인할수 있다고 객기를 부려대지 않나, 심지어 서울의 한복판에서 왜왕생일축하연까지 일제가 침략전쟁마당에서 부르던 《기미가요》의 주악에 따라 열리게 하였다.

《100년전에 일어난 일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섬나라것들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생각하는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도 일본을 대신하여 저들이 하겠다고 한 굴종의 화신도 윤석열역도이고 섬나라것들의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켜주는 일본군성노예《합의》의 착실한 리행을 운운하고있는 희세의 친일역적도 윤석열역도이며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과 반인륜적인 핵오염수방류를 묵인비호하는 희대의 반역아도 윤석열역도이다.

오죽하면 민심도 《윤석열은 일본의 하수인, 일본의 간첩》, 《윤석열은 일본총독》, 《지금의 상황은 제2의 〈한일합병〉과 다름이 없다.》고 욱욱대며 개탄하고있겠는가.

미국에 아부굴종하며 백악관과 월가의 상인들에게 경제리권을 통채로 섬겨바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세계패권전략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 윤석열의 친미매국행위 역시 친미사대매국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뛴 선행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하기에 역도에게 《윤완용》이란 이름은 너무도 잘 어울린다고 해야 할것이다.

## 《윤 재 앙》

재앙은 눈섭에서 떨어진다 하였다.

그러나 저 괴뢰지역의 모든 재앙은 윤석열의 허끝과 《룡와대》의 처마끝에서 떨어진다.

옛 전설에 어느한 왕은 만지는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였다는데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재앙의 불씨가 되고 불행의 화근이 되고있다.

《단호한 응징》과 《선제타격》, 《일전불사》와 《북정권종말》과 같은 폭언과 망언을 거리낌없이 내뱉으며 당당한 핵보유국을 겨냥한 북침전쟁광란으로 제 집안에 무서운 핵참화를 몰아오고있는 역도의 행태는 그러한 망동중의 망동이다.

그러니 민심도 《윤재앙이 북을 괜히 건드려 우리만 더 손해보았다.》, 《까불지 말라 윤재앙.》, 《윤석열이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불구뎅이로 끌고가고있다.》고 성토하고있지 않는가.

이뿐이 아니다.

역도가 집권하여 쌓은 《치적》이란 산불피해, 큰물피해, 압사사고와 같은 재난재해이고 물가란리와 실업란리의 지속이다.

그런가 하면 검찰때의 수족들을 끼고돌아 인사가 망사가 되게 하지, 밖에 나가선 체신머리없이 놀아대여 개망신을 당하고있다.

그러니 보수언론들까지 역도의 집권 1년을 《안보참사》, 《인사참사》, 《민생경제참사》, 《안전참사》, 《외교참사》라는 《5대참사》를 빚어낸 1년으로 총평하면서 이 《5대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개탄하고있다.

그리고 민심과 여론은 윤석열역도에게 《윤재앙》이라는 오명을 달아주었다.

《윤재앙》—그 재앙덩어리가 《룡와대》에 틀고있는한 《6대참사》, 《7대참사》 등 재난과 재앙은 끝이 없을것이다.

## 《윤무식》, 《윤무능》

《윤무식》과 《윤무능》은 그 무슨 쌍둥이형제의 이름이 아니다.

머리통이 갈대처럼 텅텅 비여버리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줄 모르는 미숙아 윤석열에게 꼬리처럼 붙어다니는 고유명사이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무능하면 민심이 오물에 침뱉듯 하지 못하는 암호전문》이다.

이런 무식과 무지로 하여 걷어들인 수치가 생각보다는 적었던지 아니면 제 무식과 무지를 무척이나 광고하고싶었던지 해외에 나가 으시댄 꼴이란 쪽정이 머리를 쳐드는 꼴과 너무도 흡사하였다.

무식한 처신, 무지스런 언행으로 미국의 한복판에서 미의회 의원들을 《이새끼들》이라고 제법 욕을 해댔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에선 외교적갈등을 초래하는 망언을 거침없이 뱉아놓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여론의 평가까지 받았다.

《천공스승》이란 점쟁이가 점지해주는 패쪽에 의거하여 《정사》를 하고있는 천치도 다름아닌 윤석열역도이다.

지금 괴뢰지역의 각계층에서는 《윤석열이 하는짓은 차마 눈뜨고 못보겠다.》, 《이렇게 무식한 〈대통령〉은 처음 보았다.》, 《렴치도 없고 부끄러운것도 모른다.》, 《수준이 너무 천박해서 얼굴조차 보기 싫다.》고 지탄을 쏟아내고있다.

지어 보수것들도 한숨을 토하다 못해 비난의 열물을 뿜고있는 형편이다.

이런 《윤무식》, 《윤무능》을 집권자로 선택한 인생들이 참으로 가련할뿐이다.

## 《윤 뚱 이》

제 버릇 개주랴 하는 속담이 꼭 들어맞는 추물이 바로 윤석열이다.

고등학교때부터 술이라 하면 제 애비도 팔아먹을 정도로 지독한 술군이던 역도는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이후에도 그 악습만은 절대로 개 물어가라고 내팽개치지 않았다.

앉은자리에서 맥주는 30여L, 술은 70여잔이나 마시는 이 술고래앞에선 어지간한 폭주가도 기껏해야 송사리정도이다.

그러다나니 역도는 《술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윤뚱이》라는 이색적인 오명으로도 불리우고있다.

오죽 술생각이 목젖을 물고늘어졌으면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지 사흘을 채 넘기지 못하고 밤새껏 술놀이를 벌려놓았겠는가.

그래도 체면이란게 있는데 그 체면은 어디 구겨놓았는지 한잔만 더 마시자고 추태를 부린 꼴이 말짱 드러나 술덕을 톡톡히 입었다 한다.

구데기심사는 썩은 물만 생각한다고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윤뚱이》의 심사엔 온통 술만 꽉 차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술판을 벌려놓지 않나, 장마당에선 고주망태답게 술잔을 기념으로 사지 않나, 시도 때도 없이 수족들을 불러들여 술판, 먹자판…

얼마나 술에 감기여 돌아가는 술미치광이였으면 지난해 8월 폭우가 쏟아졌을 때 비가 300㎜ 왔다는 아래것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난 맥주 500cc를 시켰는데…》라는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다 하였겠는가.

그러다나니 괴뢰인터네트에까지 《제일 상석에 앉아 놀고먹고 마시려고 〈대통령〉이 되였다.》는 글까지 실리였다.

이렇게 술이라면 오금을 못쓰고 만취되여 제 몸뚱이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윤뚱이》는 아마 지금도 술나발에 극성일것이다.

《윤뚱이》의 가량없는 술값으로 저 《룡와대》가 통채로 저당잡히지는 않겠는지…

역도의 운명은 주정계의 눈금이 말해주고 저 괴뢰지역 민심의 기구한 운명은 한편의 시구가 다 말해주고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소반의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

* *

《룡와대》 추물의 오명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윤무당》, 《윤천치》, 《윤썩열》 그리고 《룡산메돼지》와 《윤건달》, 《윤멍청》, 《비게덩어리대통령》과 《윤도리》, 《윤핵》…

정말 저지른 악행과 죄악에 걸맞는 오명들은 미처 다 꼽지 못할 정도이다. 뚜질수록 정말 구린내가 진동하는 추악한 악명이 아닐수 없다.

넙적한 양푼밑도 꼭지자국이라도 남아있는데 역도는 자기의 추태와 작태에 대해선 자그마한 거리낌도 없는 천하의 철면피한이다.

악하면 악한 끝이 있다고 하였다.

민심의 버림을 받고 오명이 많은 《룡와대》의 추물은 비참한 종말을 피할수 없다. 그것은 어쩔수 없는 숙명이다.

비운이 드리운 《룡와대》에 락엽을 만드는 쓸쓸한 가을바람이 으스스하다. 추풍락엽에 윤석열의 운명이 비껴있다.

김 태 룡

# 교육발전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이 나라의 교육을 하루빨리 선진교육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형의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대학에서는 수학부를 비롯하여 앞선 단위들을 내세우고 그 방법을 일반화하면서 이 사업을 단계별로 올려세우고있다.

뿐만아니라 빠른 기간안에 대학을 세계적수준의 연구형대학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학과목교과서들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집필하고있으며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을 일체화하기 위한 사업도 다같이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학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방법에 기초하여 학과별로 인재류형을 바로 정하는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과정안도 새롭게 만들고있다.

평양교통운수대학에서도 교육에서 학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평가하면서도 학습환경을 보장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원격교육의 특성상 실력평가에서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것으로 하여 대학에서는 인공지능기술, 가상환경기술 등 현대적인 기술들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원격교육을 보다 편리하게 하면서도 실력평가를 정확히 할수 있게 구답모의체계를 개발하였다. 도입결과 실력평가에서의 정확도는 현저히 높아졌다고 한다.

얼마전 평성교원대학에서 진행된 제6차 전국교원양성부문 대학생기억경연은 많은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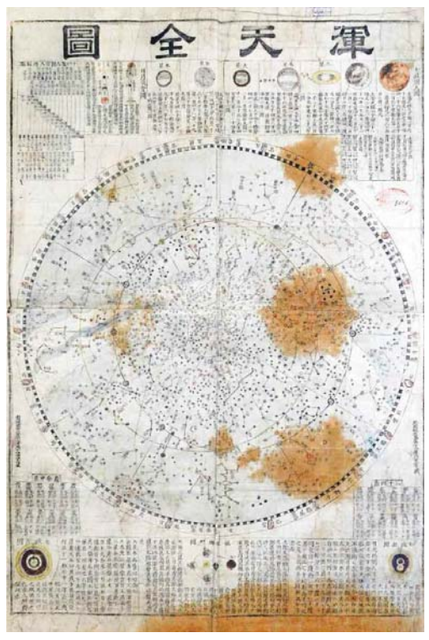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교원양성부문대학들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경연에서는 지난 시기 세운 기록들을 돌파한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였다.

이번 경연은 대학생들속에서 경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 창조된 우수한 교육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 《혼천전도》




《혼천전도》에는 단군조선시기부터 발전하여온 고유한 천문학의 발전상이 주되는 내용을 이루면서 여기에 18세기전반기까지의 서방천문학의 발전상이 단편적으로 소개되여있다.

《혼천전도》에 반영된 천문학적인 내용들은 당시의 천문학발전면모를 알수 있게 하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천문유산인 동시에 동방천문학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국보적인 천문도이다.

《혼천전도》는 현재 인민대학습당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가 깃들어있는 천문도인 《혼천전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것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또 하나의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천문도인 《혼천전도》가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천문도란 별자리그림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혼천전도》는 18세기 우리 민족의 천문학발전면모를 보여주는 천문도이다.

《혼천전도》는 《온 하늘을 그린 전체 그림》이라는 의미로서 당시 밤하늘의 별들을 한장의 종이에 투영하여 옮겨놓았고 이와 함께 천문학적현상들과 그에 대한 해설 및 천문상수들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친다

공화국의 농업부문과 련관단위들에서 농업생산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치고 최량화된 농업지도체계와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에 힘을 넣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가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해당 과학기관의 연구력량을 동원하여 농장작업반들의 실태를 중앙에서 신속히 장악분석하여 과학적으로 대책하는데 중심을 두고 농업부문관리체계를 개발하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영농계획을 작성하고 리용하며 농작물의 영양을 진단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인 비료주기의 시기와 량을 결정하기 위한 프로그람들을 개발하여 농업부문을 과학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또한 위성정보해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을 리용한 밀, 보리수확고평가를 한데 기초하여 논벼와 강냉이예상수확고를 정확히 판정하는 실천적인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한다.

정보산업성 평양이동통신운영국에서는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곳에서는 농업근로자들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농업과학기술들을 열람할수 있도록 지능형손전화기들에 봉사하기 위한 기술적문제해결에 힘을 넣고있다.

다음세대 이동통신기술을 리용하여 보다 적은 자료통신량을 가지고도 빠른 속도로 봉사를 받을수 있도록 힘쓰고있으며 이와 함께 원격농업봉사체계와 먼거리문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도 모를 박고있다.

본사기자

# 가을철의 건강관리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

감기가 류행되는 계절에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어야 비루스에 의한 질병을 예방할수 있다.

—정상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에 의하면 체온이 1℃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한다.

가을과 겨울철에 감기환자가 많아지는것은 기온과 체온의 변화에 많이 관계되기 때문이다.

—영양분섭취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것은 음식물섭취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편식하는 습관을 버리고 남새와 과일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다양하게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켜야 한다.

입안위생을 잘 지키지 못하면 치주염이 생기고 당뇨병과 심장병까지 발생할수 있다.

이발을 깨끗하게 닦고 자주 입가심을 하는 등 입안위생을 잘 지키는것은 면역력을 높이고 튼튼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관리의 첫걸음으로 된다.

본사기자

력사유적

# 개국사돌등

개국사돌등은 개성시 개국사에 있던 돌로 만든 등이다.

개국사는 10세기에 세운 사찰로서 고려시기 손꼽히는 사찰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폐사로 되였다.

개국사돌등은 남아있는 돌등가운데서 비교적 큰것의 하나로서 그 높이는 3.72m이다.

돌등은 받침대, 기둥, 불집과 둥머리로 이루어진 4각평면의 큰 돌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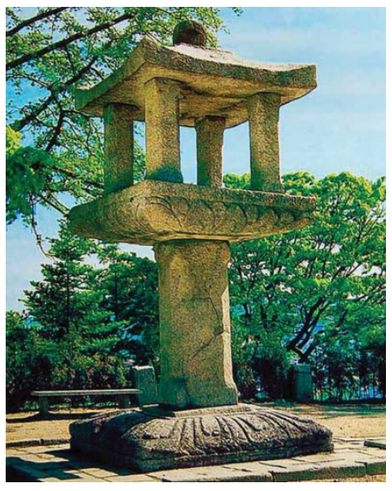
돌등은 화강석을 다듬어 만들었다.

4각평면으로 된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며 그 웃면에는 엎어놓은 모양의 련꽃을 새겼다.

개국사돌등은 간결하면서도 웅건한 느낌을 주는 고려초기 석조건축술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현재 개국사돌등은 고려박물관 경내에 보존되여있다.

본사기자



풍부한 우리 말

# 《겨를》

《겨를》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다른데 돌릴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나타내는 말이다.

《겨를》은 한가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 《겨르롭다》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로서 한가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겨르롭다》란 말에서 《…롭다》는 《그렇게 되다》, 《그럴만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겨를》은 《겨르롭다》의 말뿌리 《겨르》에 규정토 《ㄹ》이 붙어 명사화된것으로서 한가한 시간 즉 짬이란 뜻을 나타낸다.

본사기자

사화

# 기와굽기풍습 (3)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남들축에 빠질세라 성의껏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의 묘에 이른 홍달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다.

아버지의 산소를 마주하고 보니 기와집이 떠오르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어졌다.

《아버님! 불효자 홍달, 아뢰지 않을수 없소이다. 기와집을 지어 복근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아버님의 당부를 지켜드리지 못하고있소이다. 벌을 내려주소이다.》

홍달의 곁에 꿇어앉은 안해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제를 마치고 산을 내리면서 안해는 홍달이에게 물었다.

《이보세요! 그러니 아직도 기와집을 꿈꾸고있다는거예요? 도대체 우리 힘으로 기와집을 지을수 있느냐 말이예요?》

홍달은 눈섭을 찌프리며 어성을 높였다.

《그럼 내가 잠시 물러섰더니 기와집을 줴버린줄 아나? 우리 부부가 다 쓰러지는한이 있더래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드려야 함은 마땅한 도리란 말이요. 난 복근이에게 기울어져가는 이 초가집을 그대로 물려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거요.》

그 말에 안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하기야 그렇지, 저런 한심한 초가집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부모로서 죄되는 일일것이다.

낯색이 온화해진 안해는 나직이 말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으로는 기와집을 짓는다는게 여간 힘에 부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요?》

《마누라! 궁냥이 있으면 털어놓게.》

홍달의 재촉에 주밋거리던 안해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엔 갈밭을 논으로 풀어 몇해 벼농사를 하면 지붕에 씌울 기와쯤은 장만할것같애요.》

《뭐, 갈밭을 논으로 푼다구?》

잠시 고개를 숙인채 타산을 하던 홍달은 쓰거운 미소를 짓고말았다.

마누라의 그 말에 억이 막혔기때문이였다.

그래, 갈밭이 어떤 재산인가.

사실 홍달이네 갈자리가 유명해진것은 갈농사에 그 비결이 있었다.

아무리 손재간을 부려 곱게 그리고 탐탁하게 엮은 갈자리일지라도 갈대가 가늘고 채 여물지 않은것이라면 꺾어지기 쉽고 한번 꺾어지면 부스러져버리는 까닭에 그런 갈자리는 인차 못쓰게 되고만다.

갈대를 굵고 잘 여문것으로 엮어야 들기름을 바른듯 갈자리가 연한 누른색의 윤기가 나서 방안이 환해지고 산뜻해보이는것은 물론 돗자리 못지 않게 질겨 오래 쓸수 있다.

홍달이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주는 갈자리를 탐탁하게 잘 엮는 솜씨와 함께 성천강에 펼쳐진 갈밭을 가꾸는 비결이였다.

아버지는 홍달이 어렸을 때부터 성천강에 데리고나가 이른봄에는 갈밭에 불을 놓아야 하고 웅뎅이도 메우며 갈이 설핀데는 더 심어도 주고 김은 또 어떻게 매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갈은 반드시 상강절기를 전후로 해서 베여들여야 한다는 요점을 일깨워주었다.

아버지가 배워준대로 아글타글 갈밭을 가꾸고 잘 여문 철에 갈을 베여들이니 갈대가 하나같이 실하고 단단하여 그것으로 엮은 갈자리는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사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피땀흘려 마련해준 그 귀중한 갈밭을 뒤집어엎고 논으로 풀다니…

억지로 논으로 풀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 장마철이면 무섭게 물이 범람하는 성천강인데 갈밭에 푼 논은 당장 죽탕이 되고말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생전 갈밭에 논을 앉힐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것이다.

홍달은 성이 나서 버럭 큰 소리를 치고싶었으나 자기를 다잡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었다.

안해는 크게 실망하여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는 안해를 보며 속이 좋지 않아하던 홍달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다.

티끌모아 큰산을 이룬다고 갈자리를 더 많이 엮어 팔면서 허리띠를 조이면 그 돈으로 기와를 살수 있지 않을가.

한꺼번에 기와를 다 사들일수는 없는것이고 하루에 기와 몇장값을 마련해서 한달에 백여장씩 사들이면 불과 몇해만에 넉근히 큰 기와집 한채를 씌울수 있을것이 아닌가.

홍달은 안해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반신반의하던 안해의 얼굴이 마침내 환해졌다.

《그 궁냥이 그럴듯해요. 하루에 기와 몇장값만한 돈이야 마련하지 못하겠어요?》

그날부터 홍달이네는 푼전을 아껴가며 죽으로 끼니를 에웠고 밤에까지 갈자리를 엮었다.

며칠 지나 홍달이는 이것도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풀죽으로 때식을 굶때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것도 한두해이지 강산이 변하도록 생고생을 어떻게 사서 할수 있단 말인가.

옛적에 어떤 사람이 생일날 하루 잘 차려먹으려고 재물을 아끼다가 그전에 굶어죽었다는 소리도 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무슨 변통이 있어야지…

홍달은 여러날째 머리를 쥐여짜며 기와장을 장만할 궁냥을 거듭했으나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에라, 호랑이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아야 그림을 그린다는데 도대체 기와를 어떻게 굽는것인지 구경이라도 하고 올가.

홍달은 아침일찍 기와점촌을 찾아갔다.

아늑한 골안에 자리잡은 기와점촌에서는 장공인들이 기와를 빚어 굽느라고 벅적이였다.

한켠에서는 산더미같이 파다놓은 흙을 이겨서는 기와틀에 넣어 기와를 빚어내고 다른 한켠에서는 구운 기와를 기와가마에서 꺼내느라 장공인들이 땀을 흘리며 돌아갔다.

장공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기와굽는 일이 뭐 별다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천강기슭에 흔한 갈매흙을 파다가 기와모양으로 빚어말린걸 기와가마라고 하는 불아궁이에 넣었다가 꺼내면 그게 기와였다.

한나절동안 기와점촌을 오락가락하면서 기와굽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던 홍달은 불쑥 무릎을 쳤다.

까짓것 기와쟁이들처럼 집에서도 기와를 구워내면 안된다더냐.

세끼 때식을 끓이느라고 아궁에 불을 땔 때 그안에 기와 몇장을 넣고 구우면 그게 바로 꿩먹고 알먹고 둥지털어 불때는 격이 아닌가.

기껏해서 갈매흙이나 파다가 암기와와 수기와를 빚는 일밖에 품들게 없겠는데…

ㄱ—1633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